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가족의 행복이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9월 19일) · 주간

제963호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 위험해 빠지지 말라.

경주 황룡사 복원 전진기지 들어선다

문화재청·경주시 10월 21일 연구센터 기공식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 복원이 본격화된다. 황룡사 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교계와 대구 · 경북 지역 대선 공약으로 이전부터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10월 21일 경주 황룡사지 인근 부지에서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경상북도의원, 경주시의원, 관계전문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고, 가상 황룡사 복원 영상물 상영과 대북 · 모듬북 공연, 풍물패 지신밟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황룡사 연구센터는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돼 지상2층, 연면적 2,865㎡의 규모로 건립된다. 전통건축 외형의 콘크리트 구조로 1층에는 홍보영상관, 학예 연구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전시실, 관람 발코니,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또한 센터 내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제작 중인 황룡사 목탑 10분의 1 축소 모형도 전시된다. 목탑 모형은 현재 2층까지 제작이 완료돼 연말까지 8m 높이로 완성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황룡사 연구센터는 황룡사 복원의 기간 시설로 장기간 소요되는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 홍보,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황룡사 복원을 위해 2006년부터 발굴조사와 기초 · 심화연구, 9층 목탑 1/10모형을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복원을 위한 설계 작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황룡사 전체 복원 사업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경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황룡사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기반 구축을 끝냈으며, 2015년까지 복원에 대한 심화 연구와 함께 기본 ·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황룡사 전체를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29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여억 원은 높이 72.9m인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는데 쓰인다.

전시 · 관리 · 연구기능 수행
2015년 10월 준공 예정
年 관람객 50만명 기대
9층 목탑부터 전각까지
전체 복원에 30년 예상

또한 이 시기 황룡사 9층 목탑과 함께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알려진 5.7m 규모의 장육존상과 불상을 봉안하는 금당도 복원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마지막 단계로 동 · 서강당, 남회랑 등 황룡사 주요 부속건물을 복원한다. 특히 황룡사 동쪽 일대의 왕경 유적지에는 스님들의 방사와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 시설이 들어서며, 황룡사 진입로를 중심으로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쇼핑거리, 숙박 · 음식을 판매하는 신라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35년 최종 완공될 황룡사 복원 조감도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합창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2일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선법합창단과 인순이, 김태우 등 출연진이 함께해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풀어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조계종 포교대상 제원 스님·임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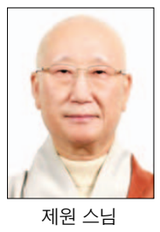
제25회 공동 수상자 선정…24일 전통공연장서 시상식

제25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과 임희웅 포교사단장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15일 "포교대상에 제원 스님과 임희웅 포교사단장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교대상 수상자는 스님과 재가자가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재가자로서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공로상 5명, 원력상에 개인 11명, 단체 1곳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제원 스님은 1992년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 후원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21년 간 복지분야에서 노인 여가문화, 저소득층의 빈곤지원 등에 앞장서 왔다. 또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사업, 어린이집 운영 등 포교분야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인 것이 인정받았다.



제원 스님

임희웅 단장

제원 스님, 복지포교에 전력
임희웅 단장, 재가자로 첫 대상

임희웅 포교사단 단장은 재가자로서는 첫 대상수상자로 1996년 종단 포교사 자격 취득 이후 일반포교사를 배출하고 포교사단이 재가불자들의 대표 신행단체로 자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인 포교대상 공로상은 인천 수미정사 회주 종연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이병인 · 이영경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이현수 전 직할교구 신도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10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63호 INDEX

시방세계 5
불광사 중창불사 회향법회 현장

종합 3
홍대 청소노동자 찾은 조계종 노동위
근현대 불교문화재 총망라 보고서

복지 7
창립 10주년 맞는 지구촌 공생회

강의실 중계 8
前중앙승가대총장 종범 스님

학술 9
"수월 스님, 경허 스님 법제자 아니다"

테마로 읽는 사찰기행 12
구례 사성암

해외 18
미얀마, 여성 출가자 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1일 개회

15일 회기로…예산안 심의 · 인사안 등 다뤄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가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 16일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96회 정기회 운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11월 1일 정기회를 개회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종정감사를 정기회 휴회 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며, 11월 11일에 속개해 안건들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중앙종회는 이월안건인 불교임상의료원 수행법 제정안과 승가고시법 개정안, 한글 의례문 '천수경' 동의의 건을 비롯해 △201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지선 스님 고불총림 방장 추대의 건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성우, 대원, 성파, 지성 스님) 등의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 의안접수 마감일은 10월 25일이며, 종책질의 접수는 10월 27일까지 받는다. 신중일 기자

버스웰 교수, 英판 '불교대사전'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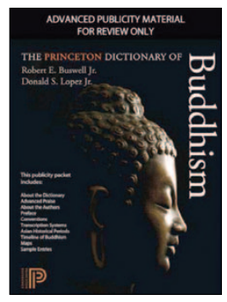
1300쪽 분량, 12000개 불교용어 담아

전 세계의 불교 현황과 불교 용어를 영어로 총정리한 영문판 불교대사전이 출간된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는 도널드 로페스 교수(美 미시간주립대)와 10년간 공동작업 끝에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를 이달 말 출간한다. 미국 ·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교 용어의 영문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펴낼 책은 1300여 쪽 분량에 1만2000여 개의 불교용어를 담았다. 특히 한국학 전문가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책에서 한국불교의 비중을 크게 다룬 것도 특징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 전통인 간화선을 비롯해 한국불교가 각국에 미친 영향과 중국불교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제각각인 불교용어 영문 표기의 혼선을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은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지만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서 미리 예약하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버스웰 교수는 지난 1970년대 송광사에서 출가해 구산 스님의 제자로 5년간 수행했던 한국통이다. 그는 현재 전통강원 교재인 〈사집〉을 영역 중이다. 노덕현 기자

10 · 27법난 33주년 행사 '다채'

기념법회 · 청춘토크파티 등

조계종이 10 · 27법난 33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조속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10월 25일에는 피해관련자 초청 간담회와 기념법회를 갖고 시낭송회 및 합창으로 추모문학예술제를 연다. 11월 중순에는 제주, 광주, 충청 등을 돌며 각 지방 불자들과 10 · 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도 열린다.

정혜숙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